

종합·국제

중 성장률 둔화 한국 기업 먹구름

작년 對中 수출 660억달러 美의 2배 ... 무역수지 악영향 우려

현장과 시각

직불금 불똥 ... 긴장하는 공무원



홍행기
정정부 차장

전남지역 공무원 A씨는 요즘 들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번 주 초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중세가 부쩍 심해졌다. A씨는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평소엔 부모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다, 자신의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어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명 자신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허위 신고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직불금 부정 수령자로 지목돼 인사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 증가를 피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악용한 과립치벌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파문이 커지면서 최근 1~2년 새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해놓은 전남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지만 공무원 신분 특성상 농사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몇몇 직불금 부정 수령 공무원의 경우 실제 경작자로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을 포함한 이처럼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의 경우 농지소유주와 실제 경작농인이 직불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경우가 전남에서만 825건이었다. 또 자신 소유의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경작자'가 지난해 전남에서 5천447명(3천642ha)에 이르며,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관외 경작자도 6천272명(4천496ha)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경우 전체 쌀 재배농지 18만9천381ha 가운데 60%인 11만2천650ha가 임대로 경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수록 드러난 직불금 부정수령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나 농림수산식품부, 일선 자치단체 등이 20일부터 실시하는 '직불금 부당 수령 전수조사' 결과 일부라도 전남지역 공무원이 직불금 부정 수령자로 파악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과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직불금 파문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어 불법·편법을 저질러 온 일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남도 관계자의 지적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다. /redplane@kwangju.co.kr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0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에 최근 5년 연속 두자릿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온 중국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예상보다 크게 낮은 9.0% 성장에 그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인데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국이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곧바로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으로 659억 달러를 수출하고 535억 달러를 수입해 12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미국의 2배, 일본의 4배 규모이다.

대중국 수출은 6월 33.2% 증가한 뒤 7월 30.2%, 8월 20.7%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인데 3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4분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69.3%), 철강제품(64.6%), 기초산업기계(26.9%), 액정디바이스(9.9%)는 늘어난 반면 자동차 부품은 20.5%

반도체는 17.3%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는 한국의 중국 수출 주력 상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제품의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중국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교역이 예상되며 한국이 중국 수출에서 강점이 있는 화학 분야 등을 적극 공략해 수출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육사 교정 내 로빈슨관에서는 전통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육사 20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뉴욕의 한국전통예술협회 회원들이 사물놀이와 소고춤과 부채춤 등 한국 전통춤을 선보였다. 사진은 국악인 오정해 씨와 생도들. /연합뉴스

중 경제성장률 한자릿수 추락

3분기 GDP 전년동기비 9.0% 증가 그쳐 5년 연속 두자릿수 초고속 성장 둔화 조짐

최근 5년 연속 두자릿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온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자릿수로 추락했다. 리샤오차오(李曉超)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3분기 국내총생산

(GDP)이 전년동기 대비 9.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당초 전망치 9.5~9.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2조9천600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9.9% 증가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 5년 연속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올해 들어 1분기에는 10.6%, 2분기에는 10.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철강업체들이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감산을 하거나 문을 닫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가 중국 실물경제를 감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강풍을 맞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는 등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파월 "오바마 지지"

부시 행정부 첫 흑인 국무장관
국가안보·외교문제 우려 불식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19일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이번 대선 가도에서 승기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원군을 얻었다. 부시 행정부에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파월은 이날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에서 출연해 오바마를 "전환기적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뛰어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CNN방송 등 미 주요언론들은 긴급뉴스로 파월의 지지선언을 "엄청난 지지선언(huge endorsement)"이라며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대선판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월 전 장관은 흑인 최초의 미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그동안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인물인데다 그의 이번 지지선언은 무엇보다 오바마의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멍청한 美 은행덕에 대박났다"

서브프라임 예견 펀드매니저 '은퇴의 늪'

"미국 금융계에 포진한 고학력의 '멍청이들' 덕분에 작년 870%의 펀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기도 했던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미국 금융계를 통틀어 비난하며 은퇴를 선언했다고 18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드 캐피털'의 창설자인 헤지펀드 매니저 앤드루 라드는 부유층의 자녀가 고급 교육을 통해 사회 주역에 진출하는 '귀족주의'를 경멸하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보내며 작별을 고했다.

라드는 자신과 거래한 금융권 인사들에 대해 "부모 덕에 유치원-에일-하버드 MBA 코스를 밟은 바보들"이라며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의 값어치도 못하면서 AIG, 리만브러더스의 간부나 정부의 요직에 진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올 스타팀 7급

한빛고시학원

개강 11월 3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한짱단과반 9급 야간특설반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권·속·원·공인·증·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친정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옆)

| 지역 | 소재지 | 대/전(㎡) | 감평가 | 최저가 | 비고 |
|-----|-----|-----------|------------|------------|------------------------|
| 북구 | 오차동 | 503/1944 | 19,900,000 | 14,418,000 | 우등주택(1층) 2층(2층) 3층(3층) |
| 북구 | 중동 | 484/1324 | 12,900,000 | 8,800,000 | 상가(1층) 2층(2층) |
| 북구 | 중동 | 466/738 | 9,900,000 | 4,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북구 | 우산동 | 317/1112 | 13,900,000 | 9,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북구 | 우산동 | 308/230 | 2,900,000 | 1,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북구 | 양산동 | 1186/3284 | 41,900,000 | 29,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북구 | 신안동 | 705/2872 | 22,900,000 | 10,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광산구 | 일곡동 | 368/412 | 5,900,000 | 4,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광산구 | 우산동 | 823/640 | 10,900,000 | 7,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광산구 | 중앙동 | 518/1275 | 14,900,000 | 9,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광산구 | 신안동 | 345/775 | 7,900,000 | 5,900,000 | 상가(1층) 2층(2층) |
| 광산구 | 중앙동 | 208/576 | 3,900,000 | 2,900,000 | 상가(1층) 2층(2층) |

남성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택품 NAVER 주소(이)대산프리모

SBS·KBC 「사람세상 방영」

가발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 채 011-607-5330

대우호텔, 후포(일요일) 정성영업 대표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abal.co.kr